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3년 10월 15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레위기 24장 5-9절

설교제목 : “순결한 상 위에 진설하고”

오늘은 진설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설병이란 진설이란 ‘벌여놓다’는 뜻이고, 병은 ‘떡’입니다. 진설병은 벌여놓은 떡입니다. 이 떡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듭니다.(5절) 정도의 양이기에 한 덩어리의 떡의 크기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떡 12개를 안식일마다 순결한 즉 정금을 입힌 진설병 상위에 두 줄로 해서 여섯 개씩 쌓아놓았습니다.(6절) 12개는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진설병은 고대근동에서 신들에게 드려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대중동의 문화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허기가 지지 않도록 식사 시간에 맞춰 음식을 잘 대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진설병의 용도는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9절) 따라서,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요6:35) 진설병은 참된 양식이 되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양식삼는 자입니다. 양식삼는다는 내 삶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와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로 양식삼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본문에서 ‘오늘’이란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은 한마디로 ‘이 땅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목마름과 굶주림을 경험하는 광야적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일용할’이란 ‘에피우시온’입니다. ‘에피’는 위란 의미입니다. ‘위의 것으로 있는 양식’(아르톤)입니다. 즉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 6:48-51) 위에서 온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린 자들에게 떡을 먹이는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빈 들에서 일어났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이것이 ‘세메이온’입니다. 이 땅의 삶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이 떡을 먹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양식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양식으로도 기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을 봅시다. 7절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은 보스웰과에 속하는 관목에서 채취한 진액입니다. 이 유향을 각 줄에 듭니다. 진설병에 유향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놓아서 향으로 피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유향이 진설병을 대신하여 태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후2:15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합니다. 고후2: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로 번역된 ‘유오디아’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명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향의 향을 피어오르게 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삽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로 삽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입니다. 눅11:5-6에 보면 5절을 보시면 세 벋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벋은 밤에 여행을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벋은 여행하는 벋에게 떡을 먹이려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행하는 친구가 왔지만, 먹일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떡이 있는 벋에게 가서 필요한 떡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벋은 떡을 가지고 있는 벋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밤에 여행하는 벋이 어떤 벋의 집에 갔는데, 그 벋이 먹일 떡이 없어, 떡을 가지고 있는 벋에게 찾아가서 세 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의 떡을 요구합니까? 떡 세 덩이입니다.(5절) 세 덩어리는 한 끼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떡 세 덩이’ 해당하는 헬라어가 ‘트레이스 아르투스’입니다. 트레이스는 3인데 ‘하늘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늘의 떡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떡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3이란 연합과 협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된 기도자는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양식을 구해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참 떡이신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삽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하늘의 양식을 먹은 성도가 그 양식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양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벧전2:9)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양식을 나누는 자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부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양식을 나누는 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예수님을 양식삼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유향을 진설병 위에 놓고, 향을 피워 하나님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도록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땅을 삽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고, 우리가 이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